

2016. 10. 31.(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東亞日報

DMZ서 사랑나눔 김장캠핑 어때요

내달 11~13일 한탄강 오토캠핑장서

비무장지대(DMZ) 체험과 김장김치 나눔을 함께하는 신개념 캠핑 행사가 경기 연천군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 캠핑퍼스트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연천군 한탄강 오토캠핑장에서 'DMZ 사랑나눔 김장 캠핑'을 개최한

다고 30일 밝혔다.

150여 팀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캠핑에서 참가자들은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기부를 실천하게 된다. 또 참가자들이 내놓은 다양한 캠핑용품은 경매를 통해 지역 이웃에게 기부하는 나눔 경매 프로그램, DMZ 투어와 로컬푸드 시식 행사도 마련된다.

2016년 10월 31일 (월)

18면 수도권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경기 북부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핑퍼스트 카페(cafe.naver.com/campinfirst)와 경기관광포털사이트(www.ggtour.or.kr)를 통해 31일부터 선착순으로 캠핑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의는 캠핑퍼스트(02-586-4473)로 하면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21.8 X 5.6 cm

경기신문

2016년 10월 31일 (월)

03면 종합

DMZ 사랑나눔 김장캠핑

도-경기관광공사 내달 11~13일
연천 한탄강 오토캠핑장서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다음달 11~13일 연천 한탄강 오토캠핑장에서 'DMZ 사랑나눔 김장캠핑'을 개최한다.

'당신은 사랑나눔 캠퍼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DMZ 체험과 김장김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캠핑이다. 150여개팀, 700여명이 참가해 김장김치 2천 포기를 담게 되며 연천군이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기부된다.

또 참가자들이 내놓은 다양한 캠핑용품을 경매를 통해 지역 이웃에 기부하는

나눔 경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포틀럭(potluck) 파티가 열려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게 되며 연천지역 DMZ 등 생태·안보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는 31일부터 캠핑퍼스트 카페(<http://cafe.naver.com/campingfirst>)나 경기관광포털사이트(<http://www.ggtour.or.k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내용은 캠핑퍼스트(02-586-4473)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나눔 캠핑 행사를 통해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11.8 X 9.6 cm

통일 새싹들, DMZ 분단의 아픔과 마주하다

학생 300명 그리기 참가

경기도는 지난 29일 연천 임진물새롬랜드 일원에서 열린 '2016년도 DMZ 미술대회'가 총 300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DMZ의 자연·역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

부문별로 100명씩, 총 3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검인된 도화지(4절 쉼트지)를 받아 '분단의 아픔 위에 핀 생명의 땅 DMZ'라는 주제에 맞춰 저마다 그림 실력을 뽐냈다. 강연진(17세) 학생은 "평소에는 쉽게 올 수 없는 DMZ의 연천군 주상절리를 마주하니 한 폭의 산수화 속에서 미술 작품을 완성한 느낌"이라며 "내년에도 DMZ생태와 관련된 장소에서 부모님과 같이 미술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는 미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3명의 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주제표현, 재료사용, 회화성, 완성도 등으로 결과는 다음 달 3일 도 DMZ 공식홈페이지(<http://dmz.gg.go.kr>)에서 발표하며 개별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통일부장관상을, 나머지 22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 연천군수상, 경기관광공사 사장상 등을 각각 수여하며 입상작은 추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9일 연천군에 위치한 임진포서포터즈에서 열린 '2016 DMZ 미술대회'에 참가한 중등부 학생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주제의 수채화를 그리고 있다.

의정부/최재은·장재은·김연대기자 kyt@kyeongin.com

분단아픔·평화염원 가슴에 물들인 통일한국 주역들

**연천서 전국 초·중·고교생 222명 경연
심사결과 내달 3일 공식 홈페이지 발표
대상 1명 통일부장관상 등 총 23명 선발**

평화통일의 염원과 훼손되지 않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환경이 한 장의 화폭에 담겼다. 지난 29일 연천군 임진포서포터즈 일원에서 열린 '2016 DMZ 미술대회'에서다.

DMZ의 가치를 미술로 되새겨보는 이번 대회에는 미래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전국 초등학교생 101명과 중학생 72명, 고등학생 49명 등 총 222명이 참여해 평소 갖고 있던 그림 실력을 뽐냈다.

이들은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분단의 아픔 위에 한 '생명의 땅 DMZ'를 도와지게 그려냈다. 청소년들의 열정은 DMZ 일대를 찾아 온 살얼판 가을 기운도 감재했다.

DMZ를 바라보는 두 눈에는 분단의 아픔을 담았고, 연필과 붓을 쥐어 집은 고사리손은 씩씩이 평화를 그려냈다.

현재종(13·백마초)군은 "궁금하던 DMZ 일대를 직접 와서 보니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됐다"며 "이번 그림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담아내고, 통일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전해의 자연을 간직한 '평화누리길'은 더 없이 좋은 작품 재료가 됐다. 넓게 펼쳐진 추상 절벽과 임진강, 노랑계 물든 은행나무, 바람에 나부끼는 억새풀 등 모든 자연환경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녹아들었다.

한 학생은 길가에 피어난 코스모스를 군인의 얼굴에 새겨 넣었고, 또 다른 학생은 철책 너머 북한 의 모습을 한 쪽의 꽃 안에 담아내는 등 다양한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

박주원(15·여·전라중)양은 "현재 사는 곳이 38선 주변이라 분단의 현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그림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 심사결과에는 오는 11월 3일 경기도 DMZ 공식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심사위원단은 정기혁 경북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등 미술분야 전문가 3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주제표현, 독창성, 조형성 등을 평가해 23명의 최종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 1명에게는 통일부장관상이 주어지며, 나머지 22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 연천군수상, 경기관광공사 사장상 등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입상작은 추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경기도 DMZ 정책담당관은 "이번 대회는 DMZ의 생태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DMZ 미술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했으며, 통일부와 연천군, 경인일보, 경북대학교가 각각 후원했다.

의정부/최재은·장재은·김연대기자 kyt@kyeongin.com



연천 임진포서포터즈 내 공원에 펼쳐진 테이블에서 이번 미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김작스런 추위에 모자와 담요를 둘러싸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정부/최재은·장재은·김연대기자 kyt@kyeongin.com



▲3시간여에 걸쳐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한 어린이가 줄줄이 땀을 흘리기 위해 땀을 닦고 있다.
▲초등학교 참가한 한 어린이가 평화를 상징하는 푸른색을 사용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북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본격적인 대회 시작에 앞서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미술대회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태어난 이기 위해 핏맥을 뽐내며 대고 있는 모습.